

존경받는 축구 명감독 퍼거슨 爵 통련의 비결은



스포츠 세상

박병현 전 세계일보 체육부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식 홈페이지

모든 스포츠 가운데 가장 단순한 축구는 19세기 중엽 영국에서 비롯되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인 축구는 가장 많이 보급된 스포츠가 되었으며, 국가 간 축구 대항전은 '대리 전쟁'이라 불릴 만큼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축구에 관한 모든 행정권을 관장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가입국은 2020년 말 현재 211개국으로 유엔 가입국(201개국),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206개국) 가입국보다 많다. 유엔이나 IOC에 가입하지는 않았더라도 FIFA에 가입한 축구의 인기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맨유는 최고 인기 '명문구단'

축구의 인기는 '축구 종가(宗家)' 영국에서는 더할 나위 없다. 영국인들은 축구에 인생을 걸다시피 하고,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지 오래다. 이러한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문 클럽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다. 영국의 웬만한 클럽들은 창단한 지 100년이 안 된 팀이 없을 정도다. 맨유 역시 창단된 지 140년이 넘는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맨유의 지휘봉을 무려 27년 동안 잡았다. 2013년 7월 맨유의 홈구장 올드 트래퍼드를 떠났을 때 퍼거슨의 나이는 만 72세였다. 구단의 만류를 뿌리치고 팬들의 열화같은 성화에도 그가 지휘봉을 내려놓은 것은 바쁜 프로팀 감독생활 탓에 그동안 소홀히 했던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

내기 위해서였다.

퍼거슨은 화려했던 감독생활에 비해 선수 때에는 별 볼 일 없었다. 물론 유명 스타 플레이어가 명감독이 되라는 법은 없다. 그는 유럽의 빅 클럽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했고, 변방에 속하는 스코틀랜드 리그의 던퍼린 애슬레틱 및 레인저스 등에서 공격수로 활약한 게 전부였다.

그의 나이 33세이던 1974년 스코틀랜드 리그 이스트 스티링셔 감독으로 취임한 게 40년 지도자 생활의 첫 단추였다. 이후 애버딘FC 감독에 취임하면서 스코틀랜드 리그 3회 우승, 스코틀랜드컵 4회 우승, 1983년 유럽축구연맹(UEFA)컵 위너스컵 우승을 하며 지도자로서의 명성을 쌓았다. 이후 스코틀랜드 대표팀 감독이었던 조크 스테인이 갑자기 사망하자 퍼거슨은 스코틀랜드 대표팀을 맡아 1986년 FIFA 멕시코 월드컵에 참가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그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스코틀랜드 대표팀은 명장 퍼거슨 감독이 이끌었다 하더라도 선수층이 얇았던 탓에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는 없었다.

퍼거슨은 그해 11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선수들의 실력이 빼어난 맨유를 지휘하기에 이른다. 그는 맨유에서 지도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세계 최고의 지도자 반열에 오르게 됐다.

최고의 지도자 반열에 올라

퍼거슨 감독은 27년간 맨유 사령관으로 활약하며 프리미어리그 우승 13회, 잉글랜드 FA컵 5회, UEFA 챔피언스리그 2회 우승 등 총 38회의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특히 1999년에는 영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맨유가 트레블(리그 우승, FA컵 우승,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달성한 뒤 이에 따른 공로를 높이 인정받아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작위를 받기도 했다. 그가 퍼거슨경(卿)으로 불리게 된 이유다.

프로 선수 출신이 기사 작위를 받는 것 또한 흔한 일이 아니며, 가문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퍼거슨은 2010년 12월 19일에는 맷 버즈비(1994년 1월 작고)의 기록을 넘으면서 맨유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임한 감독으로 기록되었다.

아내와 함께 하고파 지휘봉 내려놔

70대 나이에 접어들어 은퇴설이 꾸준히 흘러나왔지만 쉽사리 맨유를 떠날 수 없



뉴스1

최고 명성 구단 맨유서 27년간 지휘봉 온화함 속 카리스마... 외유내강의 전형 선수 개성·장단점 존중, 인간관계 중시 스포츠인으로는 드물게 기사작위 받아

었다. 구단과 팬들의 요청 때문에 자신이 유일하게 좋아하고 할 줄 아는 축구를 떠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3년 5월 맨유에 20번째 리그 우승을 선사한 뒤 퍼거슨은 흥분분하게 은퇴할 수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마음 편히 은퇴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였다. 그의 은퇴 결정이 발표되던 날 맨유 주식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5%나 하락하기도 했다. 그가 맨유에 미치는 임팩트는 기대 이상이었다.

맨유 구단은 퍼거슨이 은퇴하기 6개월 전 그레이트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 구장 외곽에 동상을 세워 퍼거슨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함을 표했다. 은퇴한

뒤에는 올드 트래퍼드 근처의 도로가 그의 이름을 따 알렉스 퍼거슨 웨이로 개칭됐다.

퍼거슨에게 특별한 무엇이 있다

2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승부의 세계에서 프로팀 감독의 생명력은 파리 목숨처럼 단명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퍼거슨 감독이 세계 최고의 명문 클럽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 지휘봉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분명 남과 다른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축구감독이 바로 퍼거슨이다. 신비로운 마력을 가진 감독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른

지도자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다.

퍼거슨은 시골아저씨 같은 푸근한 인상을 풍기지만 그 내면에는 남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존재했다. 이런 카리스마는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과 더불어 선수들에게 때로는 긴장을 하며 웃어주고 제멋대로인 선수단을 장악했다. 화를 잘 내는 성격이라 빈 집에 퍼거슨 혼자 있어도 싸움이 벌어질 정도였다고 한다.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의 지도자다.

그렇지만 그는 선수 개개인의 개성과 장단점을 최대한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따뜻한 아버지 같은 감독이었다. 그랬기에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몰려 있는 맨유 선수들이 그를 따르면서 단합된 힘을 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게 퍼거슨 감독의 통련 비결이었다. 선수들 모두가 퍼거슨을 대단히 존경하고 있었다는 점은 다른 감독에게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의 가장 특출한 점 중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을 완벽히 기억하는 능력이었다. 선수단의 세탁실 및 청소 직원, 선수들 아내와 자식들까지 그는 모르는 이름이 없었다. 선수들과의 대화에서도 늘 아내와 아이들 이름까지 일일이 대며 안부를 물을 정도였으며,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이름들을 모두 기억해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자존심을 세워주곤 했다.

맨유를 사랑하는 영원한 맨유맨

몸은 비록 맨유를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홍보대사로 활약 중이다. 몇 해 전에는 맨유 감독 생활동안 모아온 와인들 모두 경매시장에 내놓아 거둔 수익금이 무려 350만파운드(한화 약 54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 돈의 일부는 자신이 70여년 전 어렸을 적 몸담았던 클럽팀에, 또 일부는 맨유 유소년 클럽에 기부했다. 자신이 몸담았던 직장(?) 맨유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는 퍼거슨이다. 이따금씩 여전히 올드 트래퍼드를 찾는 노병의 맨유 사랑은 끝이 없다.

누수 피해 등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상 유의점



바른 보험

김덕용 프라임에셋 팀장

배관 노후 또는 배관다와 욕실의 방수층 손상으로 아랫집의 누수 피해가 생겼다면 가입한 보험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동안 보험료가 저렴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어떠한 특약인지도 몰라 외면을 받았던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일배책) 특약이 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피해를 보상해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되도록 가입을 해두면 좋은 필수 특약으로 자리 잡았다.

일배책 특약은 사실 누수 이외에도 다양

공사 전 해당 보험사에 보상항목 꼭 확인하고 조율해야

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정말 유용하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큰 비용지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발생한다면 가입자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독 누수로 인한 보상 때문이라고 필자가 꼭 짚어서 말을 하는 이유는 다른 보상사례에 비해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보상 사례가 빈도수가 높고 살면서 한 번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보험소비자들이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례인 셈이다.

또한 누수로 인한 피해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순 있겠지만 대부분 피해복구에 따른 금전적인 지출이 적지 않다는 점도 일

배책 특약이 그 무엇보다도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를 신청할 때 유념할 점이 있다.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누수에 의한 아랫집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은 웬만하면 모두 보상이 된다. 하지만 간혹 공사업체 측의 과도한 공사 비용이 보

험사와 마찰을 빚을 때가 있다. 보험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과도한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일단 공사 진행에 앞서 보험사 측에 먼저 보험금 청구를 접수해 담당자를 배정받은 후 공사비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때에 따라서는 보험사에서도 협력업체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니 비교견적을 받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음으로는 긴급조치에 따라 집에 책정



된 비용청구 부분을 알아 두면 좋다. 보통 누수의 경우 일단 집 누수탐지부터 시작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과는 별도로 대부분 보상을 해준다. 하지만 긴급조치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기에 보험사 측에 누수탐지 이외에도 집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들이 해석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지식이 부족한 보험가입자들이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담당설계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입장 차이에서 오는 서로의 주장을 조금은 대변해주며 잘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보상금액을 가급적이면 적게 측정하는 것이 좋다. 반면 보험금 청구를 신청한 가입자로서는 되도록이면 많이

받으면 좋다. 하지만 간혹 지식의 부족함과 그에 따른 대응이 미흡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임에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배상책임 특약이라는 것이 특히 더 그런 것 같다. 필자도 10년을 넘게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고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배우고 느끼고 있는데 보험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어떠한지 생각하면 이러한 상황들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잘 알 것 같다.

한 번 더 강조한다. 집 누수에 의한 아랫집 피해보상은 일배책 특약에서 가능하지만 해석에 따라 더 많은 항목을 보상받을 수 있다.

공사 비용이 비이성적으로 과도한 경우 마찰을 빚을 수도 있으니 들다리도 두들겨 보듯 공사 진행 전 보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게 좋다.